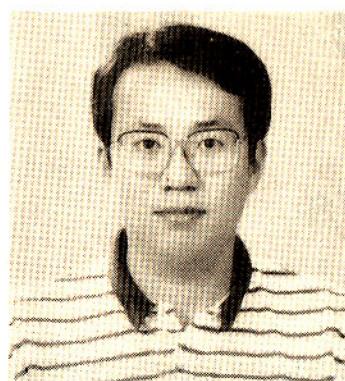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카나다 進出戰略

(Ⅲ) 카나다경제의 특징과 그에 따른 한국인의 진출전략

김영수 (경제학박사)



3.1). 3장을 시작하면서

지난 몇달 동안 本欄에서 필자는 '부자가 되는 일반적인 방법'에 관하여 독자의 視覺을 疲勞하게 하여드린 바 있다. '精力이 세어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거나, '이뻐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거나 할 경우에는 文字解讀 可能人口의 오직 折半정도의 關心만을 확실하게 끌 수 있는데,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말을 시작하면 누구나 귀가 번쩍 뜨여서 強烈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혹자는 이것을 우리가 누구나 物慾이 많은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필자는 이것을 그 만큼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 즉,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너무도 중요한 것임을 응변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곰곰히 생각해보자. 아무리, 聖人君子然하고, 또 紳士淑女樣하고 있어도, 아니 심지어 長老執事勤士菩薩 4職을 한몸에 동시에 겸직하고 있어도, 아니 더 나아가서, 佛法을 以北에 宣布하기 위한 사명을 띠고, '나는 20세

기의 이차돈이 되겠다'며 至高한 순교의 覺悟로 이북을 쳐들어 올라가도, 이 '돈문제'에 몰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곧 바로 구차한 바보, 치사한 명충이 된다. (이차돈이라는 분만 하여도 그렇다. 하구 많은 이름들 중에 왜 이차--'돈'이라고 요상한 이름을 지었겠는가?) 何如間, '싫어하는 銹' 하면서도 '확실하게' 마련하여 두어야하는 것'이 바로 이 '돈'이고, '사실은 빼앗지만', '겉으로는 주는 銹'하여야하는 것이 바로 이 '돈'이다. 그렇다고, '가지고만 있고 '풀 줄'을 모으면, 그 또한 더 바보인 것, '풀더라도 그렇게 벌어드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

을 위해 제때에 제대로 풀어야 볼 품있는 것' 그것이 바로 '돈'인 것이다. '개'가 벌어서 '정승'이 쓰는 것, '없는 놈' 일수록 있는 銹하여야하는 것... 정말, 好句一吟이 없을 수 없구나!

阿! 妙哉! 妙哉! 玄哉! 玄哉!
錢之導向 武陵苑
諸行無常 又徊輪!

어떻게 후딱 지어놓고 보니 道德經과 金剛經을 짬뽕하여 놓은 것 처럼되었지만 억지로 우리말로 의역하여 읊기자면 대강의 뜻은 다음과 같다.

묘하고도 알쏭달쏭한 것이 돈이 아닌가! 있기만 하면 만사 오우케이인듯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닌것...

정말,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인데, 이왕 말이 이까지 내친 김에 아예 뿌리를 뽑자는 의미에서, 2장서 시작한 '부자가 되는 일반적인 방법'에 약간 살을 붙이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카나다라는 韓民族의 '독특한' 디아스포라의 '독특한' 상황에 확실하게 적용,

약간 昇華發展具體化시켜보자. 再三換言하면, 2장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을 논하였는데, 이 3장에서는 '카나다적 현실 감각'이 있는 各論을 좀 논해보자는 것이다. 약간 有識하게 이야기하자면, 2장에서 마련한 연역적인 理論的 틀에 약간의 經驗的 엠파리시즘(Empiricism)을 입혀보자는 이야기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필자가 지금 까지 한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상 아무 것도 아닌 것 이 아니겠는가? 확실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서 읽는 분들이 확실한 도움을 받도록 한다는 것은 아무리 내가 쓰는 글이지만, 글을 쓰는 내 자신이 쓴다 가 가만 생각해 보아도 무척이나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3장을 시작하고 자 했더니 마음에 약간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즉 '어떠한 논리적 構造를 가지고 이 3장을 진행하여야하는가?' 하는

바로 그 문제였다. 巷間의 여느 책이나 論文들처럼, 카나다의 정치 경제 지리 인구분포 경제지수 氣候 이런 식으로 짧잖게 진행을 하는 것도 사실은 '無妨'하다고 생각하지만, 쓰는 내가 지겨워서 계속 써낼 자신이 없는 전혀 '無趣'한 방법이다. 즉, 상식적인 구조는 '無妨無趣'의 방법이다. 그렇다고 筆者の 專賣特許인 '無秩序 난장판' 식으로 글을 進行시켜보자니,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된 뱅쿠버지역이라하더라도, 이미 充分히 실

험을 거친 독자와 발행인의 忍耐를 너무 극단적으로 再試驗하는 것 같고하여, 고민고민하다가 언뜻 생각이 난 것이 르포르타쥬의 형식이다. 즉

'자기는 무지하게 특별나고 유식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평범한 어느 보통 한국인' 즉 대부분의 우리들이 이 카나다 到着하는 그 순간부터 경험할 여러가지 현상을 시간적 順序대로敍述하면서 論議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였다. 즉, 기행문의 형식으로 이 위대한 보통인간의 카나다 정착이라는 역사적 事件의 起承轉結을 時間의 차원에서 順次的 單純 서술의 형태로 이 3장을 한 번 꾸며 볼까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을 빨리 읽어보자!

3.2. 첫번째 환영객: 영어 문제

자! 우리 한국의 위대한 보통인간 한 분이 가족을 이끌고 카나다에 도착하였다고 想像의 나래를 펼쳐보자. 무언지는 모르지만, 잔뜩 이고 지고 업고 끌고 들고 차고... 待望의 나라, 기회의 나라, 無公害 자연의 나라, 바로 이 카나다에 그분 一族이 막 도착하였다고 우리 같이 상상을 하여 보자. <다음호에 계속>

필자 김영수 / Cranewood Corp대표, 전화 682-8686